

# 근대화의 기수에서 민주주의의 모델로

김형준 지음, 『이슬람과 민주주의: 인도네시아 이슬람단체 무함마디아의 민주적 전통』(놀민, 2021)을 읽고

전제성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동남아연구소 소장

## I. 거대한 무슬림단체에 관한 장기 연구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이자 한국동남아학회 회장인 김형준 박사가 집필한 「이슬람과 민주주의: 인도네시아 이슬람단체 무함마디아의 민주적 전통」(놀민, 2021)은 여러모로 대작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이 사례로 다루는 인도네시아 무함마디아(Muhammadiyah)는 역사가 110년이나 된 유서 깊은 사회 단체이고, 3,000만 명의 지지자를 보유하여 규모 면에서 세계 2위로 일컬어지는 거대한 무슬림단체다. 그런 단체의 역사를 창설부터 최근까지 정리하고 조직 체계와 운영 원리뿐만 아니라 현황과 실천에 이르기까지 소개하고 분석하고 있다. 필자 스스로 ‘과도한’ 것 같다 할 정도로 자료를 모으고 관찰하다 보니 조사와 집필에 10여 년의 시간이 투여되었다. 분량도 500쪽 이상이고 머리말과 맺음말 외의 본격적인 장이 14개나 된다.

규모와 범위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 볼 때도 통념에 도전하고 치밀하게 입증하는 역작이다. 거대한 무슬림단체의 운영방식을 민주주의 실천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통해 이슬람과 민주주의의 동행이 어렵다는 일반적 통념에 도전하면서 동시에 무함마디아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퍼즐을 던진다는 점에서 구체적 통념에도 도전한다. 무함마디아는 신실한 무슬림들의 조직이면서 현대식 교육과 복지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무함마디아는 운영

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1만 4,000여 개, 초중고교가 5,500여 개, 고등교육기관이 종합대학 57개를 포함하여 176개에 달한다니(19쪽) 국민교육 발전에 각별히 공헌한 단체라고 말할 수 있다. 교육기관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보육원까지 운영하는 무함마디야는 인도네시아의 사회발전에 기여하면서 이슬람과 근대화를 결합시킨 단체라고 평가하는데도 무리가 없다. 그런데 저자는 이런 무함마디야가 민주주의 실천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해석을 피력한다. 이러한 해석은 이슬람과 민주주의 관계,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치와 민주주의 문화에 관한 논의로 연장될 수도 있어 매우 주목할 만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저자의 핵심 주장을 잘 담은 한 문단을 골라 공유하면 다음과 같다.

무함마디야가 강조한 핵심 이념은 이성과 합리적 해석 그리고 평등성이다. 무함마디야 활동가들은 미신적 관행과 종교 지도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으로 인해 이슬람 세계가 퇴보했다고 인식했다.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성의 중요성을 회복하고, 교리에 대한 합리적 접근과 인간의 평등함을 재인식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에 기반을 두고 이슬람이 오히려 실천된다면 근대 사회의 진보를 좇아갈 수 있으리라 믿어졌다. 무함마디야 활동가들이 강조한 이념은 교리 해석뿐 아니라 조직 운영 과정에도 적용되었다. 이성의 집합적 활용을 통해 조직을 운영하고, 활동가들의 관계를 평등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민주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제도가 형성되고 작동했다. 선거를 통한 지도자의 선출, 동등한 지위를 가진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집단지도체제, 동등한 활동가들의 협의와 합의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 방식과 같은 조직 운영의 핵심 제도는 합리성과 평등성에 뒷받침되어 작동할 수 있었다.(146-148 쪽, 이하 쪽수만 기재)

이 책은 자료의 수집과 동원 면에서도 탁월하다. 저자는 현지에서 수집한 많은 사진들을 보여 주고, 단체 내부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한 표들을 전개하고, 참여관찰을 통해 확보한 수많은 작은 이야기들을 동원하면서 독자들을 자신의 해석으로 이끈다. 특히, 1925년 이래의 선거 결과를 정리한 표들(6장), 2015년 지도부 선거 참여관찰을 통한 선거문화 해석(7장), 1950년 이래 열일곱 번의 선거에서 선출된 최고위 위원들 출신 분류(8장, 그림 37), 협의를 통한 갈등해결 사례 분석(10장)은 압권이라 할 수 있다. 기록이 부실하고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인도네

시아 상황을 경험한 이들이라면 자료 확보에 투여되었을 저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게 될 것이다.

## II. 구성과 내용: 누가 어디를 읽어야 할까?

가장 바람직한 독서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는 것이겠지만, 분량이 많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바쁜 독자들은 일부만 읽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관심분야가 저마다 다른 다양한 연구자들을 위해 누가 어디를 읽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아무리 급해도 무함마디야를 소개하고 필자의 조사과정을 밝히는 1장은 건너뛸 수 없다. 2장은 이 책의 핵심 주제인 이슬람과 민주주의 양립 가능성 관련 논쟁을 소개하는데, 오리엔탈리즘, 신정체제, 경전, 교리, 선지자, 권위, 시민사회 등 여러 학술적, 종교적 용어들이 수반되지만 30쪽이 넘지 않는 분량에 쉽게 쓰여져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다. 학술 서적의 도입부분은 종종 박사학위논문 같은 형식을 취한다. 그러면 도입부분이 두껍고 무거워 가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 책은 그런 단점을 잘 피하는 미덕을 지니고 있다. 읽으면서 학위논문의 도입부분도 이렇게 쓰도록 학생들을 지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지는 3개 장은 역사편이라 할 수 있다. 3장은 단체의 탄생과정, 4장은 출범과 초기 발전 과정, 5장은 조직 확장 과정에 할애된다. 3장부터 4장에 거치는 초기 역사 이야기는 주로 창설자 아흐마드 다흘란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의 사상과 실천을 통해 조직의 탄생 배경과 초기 발전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식민시대의 정치적 중립과 분권형 지부운영(123) 방식은 조직 보존과 확장의 비결로 언급된다. 경전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주의, 이성과 진보에 대한 신뢰, 조직 내 평등 추구 등 무함마디야의 핵심 이념에 대한 소개(4장 말미, 131-148)는 오늘날까지 유지되는 전통의 형성 시기와 내용을 파악하는 중요한 대목으로 여겨진다. 5장은 단체의 성장을 지부와 사업의 확장 과정으로 소개하는데, 중앙과 지부 및 사업 관계의 분권적 전통도 역사적으로 일찍이 형성되었음을 알려 준다.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단체의 탄생과 성장 과정에 관심을 둔 이들, 특히 이

슬람 근대주의(modernism) 혹은 개혁주의의 형성에 대해 알고 싶은 이들은 이 역사편을 꼭 읽어야 할 것이다. 무함마디야는 신앙을 매개로 하는 자발적 결사체(association)이고, 주지하다시피 시민사회(civil society)는 결사체로 구성된다(에드워즈, 2018: 2장). 그러므로 인도네시아 시민사회의 역사를 파악하고자 하는 이들 역시 이 부분을 읽어야 할 것이다. 학교와 병원의 설립과 운영이 이 단체의 중요한 특징이자 자원이기에 인도네시아의 교육과 보건 발전에 관심 있는 이들도 이 부분을 읽으면 참조할 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근대주의를 표방하여 이슬람개혁운동을 전개하였고 결사체로서 시민사회의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근대적인 학교와 병원 설립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무함마디야는 ‘조국 근대화의 기수’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책의 역사 서술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근대화 과정에 관심을 갖는 이들도 이 부분을 읽어 보면 좋겠다.

이 책의 고유한 핵심은 6장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부터 책의 종결 부분까지 단체의 지도부 선출과 조직 운영 방식을 민주주의로 해석하는 분석이 전개된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와 정치과정(political process)에 관심이 있는 이들은 마지막 14장까지 다 읽어야 할 것이지만, 아홉 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본론을 ‘지도부 선거’, ‘의사 결정’, ‘분권 및 통합’이라는 3개의 주제로 나눠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단체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선거 이야기가 6장, 7장, 8장에 담겨 있다. 이 부분은 선거 제도 절차와 문화 및 효과성에 관심 있는 이들이 읽어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장은 선거제도 중심의 장이다. 이 단체가 집단지도부를 선출하는 5년 주기 선거를 근 100년간 유지해 왔고 지도부의 수만큼 후보자의 이름을 기입하는 특수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내용이다. 7장은 선거문화에 관한 장으로 주로 선거과정에 관한 참여관찰을 통해 독창적인 발견과 해석을 담아낸다. 카리스마의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무함마디야에서는 선거운동이 오히려 선거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역설이 소개된다. 8장은 선거결과 구성된 지도부에 관한 것이다. 저자는 놀랍게도 65년간의 선거에서 어떤 사람들이 뽑혔는지를 살펴서 출신 성분의 변화를 추적한다. 전문인들과 함께 인문사회과학계 교수나 지식인들이 선호되는 새로운 추세를 발견한다. 대통령 후보였던 아민 라이스의 단체 복귀와 몰락 과정(271-287)은 카리스마를 경계하는 무함마디야의 조

직 문화를 설득력 있게 예시하는 사례였다.

무샤와라(musyawah)라는 협의와 합의의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소개와 분석은 이 책에서 가장 주목받아야 할 부분이다. 9장 “조직 운영방식: 무샤와라”에서 개념이 정의되고 샘플로서 갈등조정 사례가 간략히 제시된다. 10장 “무샤와라의 절차, 결정의 특징”에서 토지기증 관련 분쟁 사례가 무샤와라를 통해 어떻게 다루어지고 해결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된다. 협의나 숙의로 번역되는 무샤와라는 인도네시아 문화를 꿰뚫는 핵심어에 속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와 관계하는 모든 이들이 무샤와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무샤와라는 아세안의 결정원리로 일찍이 도입되고 지금도 통용되고 있기에 아세안 관련자와 관찰자들도 무샤와라의 취지와 방식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동남아 연구자들은 물론이고 숙의 과정의 가치를 인정하는 민주주의 연구자들도 읽어야만 하는 부분이다. 특히 독보적인 무샤와라 사례 연구라 할 수 있는 10장을 읽는다면 유익한 근거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11장부터 14장까지 4개의 장은 중앙과 지부 및 사업기관(아말 우사하) 관계에 할애된다. 여기서 본부와 지부와 사업기관 사이의 관계는 자율성이 존중되는 분권 체계로 설명된다. 분권과 자율 체계 속에서도 파벌 형성이 억제되고 거대 조직으로서 통합이 한 세기 이상 유지될 수 있었다. 어쩌면 이 책에서 가장 평이하고 지루한 부분이라 여기는 이들이 있겠으나, 인도네시아 사회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심을 둔 이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산하 기관의 부패와 독단의 방지, 조직의 질과 명예 관리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법 한데, 무함마디야는 제재나 징계 수단을 앞세우지 않고도 조직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신비롭게 다가온다. 자발적 결사체의 전국적 조직 통합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를테면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운동은 조직 내부 경쟁이 탈퇴와 분리로 이어져 조직적 난립 경향을 보였다(전제성, 2003). 인권운동단체에서도 내부적 갈등이 조직적 분립으로 귀결되곤 했다(전제성, 2007). 리더십 경쟁, 노선 차이, 이익 다툼, 법인 구조의 문제 등 여러 변수가 감안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무함마디야의 통합 유지는 비상한 것이다.

그 비결에 관해 저자는 유연성(무계획성), 느슨한 연대, 개방성, 타협성, 중도 추구, 정치적 중립성, 공사 구분, 활동가의 무보수 특성, 카리스마 억제, 민주주의

등 여러 요인들을 열거한다. 하나의 사례연구 차원에서 다 중요한 요소이나 비교적 차원에서 본다면, 이 단체가 신앙을 공유하는 이들의 결사체라는 점, 그것이 개방적이고 타협적인 개혁주의 이슬람이라는 점이 통합에 효과적으로 기능했던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겠다. 활동가의 무보수성, 즉 실비 지원 외에 아무런 이익도 얻을 수 없는 봉사로서 조직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중요한 비교 포인트일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 요인을 횡단하는 성공의 열쇠는 무샤와라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천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 III. 협의와 합의의 민주주의 실천 사례

저자는 주기적인 선거의 시행에 더하여 분권과 자율을 인정하고 협의와 합의로 의사를 결정하는 무함마디아의 운영방식을 민주주의라 정의하였다. 그런데 이런 무함마디아의 민주주의는 한국의 독자들에게 익숙한 유형이 아니다. 한국은 소위 ‘다수결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는 유형에 속하고 더구나 약간이라도 앞서서는 다수가 승리하고 독식하는 유형에 속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과반의 득표를 요하는 절대다수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수 득표면 족한 단순 다수제를 택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취하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당선자들이 속출하고 낮은 지지율도 놀라운 현상이 아니게 된다. 일상에서도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협의보다 표결이 쉽게 제안되곤 한다. 민주주의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정치학자들끼리도 각자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기도 전에 시간 부족을 이유로 표결에 부치자고 한다. 논의를 길게 해 봐야 원래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이고 어차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며 협의가 쓸모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다수결과 등치될 수 없으며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한 가지 유형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르치고 있다. 다수결 민주주의는 언어, 종교, 지역 균열로 나뉜 다원 사회(plural societies)에서 ‘영원한 소수’의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지 않은 나라에서 다른 유형을 개발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네덜란드 출신의 저명한 정치제도연구자 아렌드 레이파트(Arend Lijphart)가 이름 붙인 협의민주주의(consociational democracy) 혹은 합의제 민주주의 모델

(consensus model of democracy)이다. 이런 유형은 대연정(grand coalition), 소수자 거부권(minority veto), 부문의 자율성과 연방주의를 비롯한 여러 분권적 제도들을 통하여 권력을 분산시키고 공유하면서 영원한 소수의 항상적 패배를 막고 가급적 더 많은 다수를 통합하기 위해 노력한다(레이파트, 1987: 1-3장). 이런 식으로 가능한 한 많은 다수를 포함하려는 유럽의 (주로 작은 나라들의) 제도적 창의성은 유럽연합의 운영체제로 확대 적용되었다(레이프하트, 2016: 2-3장; Lijphart, 2007).

무함마디아의 민주주의도 더 많은 다수를 포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합의제 유형과 같은 선상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무함마디아의 민주주의는 저자가 충분히 제시했듯이 단지 제도적 차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무함마디야가 포용과 통합의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중요한 실천방식의 하나가 바로 무샤와라이다. 아랍어에서 차용된 무샤와라는 꾸란에서 권장된 바 있지만 혐의를 즐기고 존중하는 인도네시아 전통 문화와 연결되어 있어 인도네시아 국가이념 팡짜실라(Pancasila) 5대 국시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기도 하다. 무샤와라의 가장 근사한 영어 번역어는 deliberation일 것이고, 이는 다시 한국어로 숙의, 심의, 토의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숙의 효과에 큰 기대를 거는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주창자들은 이 책에 수록된 무샤와라 실천 사례에 지대한 관심을 표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모로 주목할 만한 무샤와라가 과연 무엇인지 저자의 정의를 들어 보자.

협의를 뜻하는 무샤와라는 ‘일치된 결정’, ‘합의’를 의미하는 ‘무파캇(mufakat)’과 보통 쌍을 이루어 사용된다. 무샤와라-무파캇은 서로 상이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이 토론과 협의를 통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해결책에 도달하는 관행을 일컫는다. 무샤와라는 집합적 이성 활용 방식이지만,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참가자의 평등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평등한 지위를 가진 무슬림이 함께 모여 숙의 과정을 거칠 때 비로서 집합적 이성 활용이 가능하다.(292)

얼핏 추상적 덕목처럼 보이는 무샤와라가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될 수 있을까?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협의의 전개 과정을 저자는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다.

그 형식은 일정했다. 참가자 모두에게 자신의 견해를 개진할 기회가 주어지고 서로 토론을 하고 나서 이를 바탕으로 합치된 의견을 도출했다. 참가자들은 한 차례의 무사와라에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효율성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라는 측면이 중시되었기 때문으로, 몇 차례에 걸친 반복적 논의가 일상적 절차로 확립되어 있었다.(305-306)

현대 민주주의 이론이 속의 민주주의로 수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속의가 중시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헬드, 2013: 9장). 저자가 소개하고 분석한 무사와라 사례도 속의의 가치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우선, 속의는 대안이나 해법이 불분명할 때 긴요하다는 것을 알려 준다. 이 책에서 심층 분석되는 사례는 대립적인 양측의 어느 한 편을 취하기 어려운 사안을 다루었고 장기간의 논의 끝에 새로운 합의안을 구성하는데 성공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마티야 센(Amartya Sen)은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민주주의가 유용하다면서 민주주의의 도구적 효과뿐만 아니라 구성적 효과를 강조한 바 있다(센, 2001: 6장). 여기서 도구적 효과란 경제적 필요를 내세우고 쟁취하는데 민주주의가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것이고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하지 않거나 논쟁적일 때는 필요부터 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민주주의의 구성적 기능이 작동할 때이다. 필요 구성의 과정은 무사와라 사례처럼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책의 무사와라 사례는 속의가 대립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속의를 거치면 사람들의 원래 선호가 조정되면서 갈등 수준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합하는 사례인 것이다. 속의에 참여하는 이들은 상대의 다른 의견을 들으며 설득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상대의 입장을 고려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원래의 선호가 조정되면서 절충적 의견을 갖게 되거나 더 만족할만한 새로운 안에 도달할 수도 있다. 더구나 무파당을 추구하여 합의에 도달한 무사와라 사례는 승자와 패자를 특정할 수 없게 만든다. 단순 표결은 승자와 패자를 즉각적으로 가르고, 속의를 거친 표결은 상대에 대한 이해를 더 갖춘 승자와 패자를 낳을 것이다. 그런데 합의에 성공하면 명료한 패자가 없는 결과를 얻는다. 무함마디야 활동가의 말처럼 “합의가 우리 모두의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이다(337).



합의를 타협의 일종으로 본다면, 이 책에서 사례로 분석된 무샤와라의 타협은 물질적 이익의 균형점을 찾는 계급타협과 다른 종류인 것 같다.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 이론에 기반을 둔 계급타협 가설(Przeworski, 1986: chapter 4)은 노동과 자본이 각자의 최대 물질적 이익을 상정하고 협상과정에서 이익을 양보하면서 타협점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타협이 가능하려면 자본 측이 양보를 위한 물질적 기초를 갖고 있어야 하고 타협안도 줄다리기처럼 수평적으로 상충하는 물질적 이익의 특정 지점에서 찾아진다. 그런데 무샤와라 사례는 물질적 기초와 경제적 타산을 넘어서는 타협의 사례라 할 수 있다. 금전과 시간이 교환될 수 있고 참가자들의 사회적 평판의 보전도 타협의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다(335). 교환할 것이 다양하다면 타협에 도달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샤와라 사례는 숙의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조건과 비결도 알려 준다. 자유로운 발언 기회와 평등한 고려는 기본 조건이다. 모든 참여자들이 발언해야 하고 누구도 무시되지 않는다. 무샤와라에 임하는 “우리 모두는 올바르게 고귀하다”(337)는 시각이 필요하다. 진정한 숙의가 가능하려면 민주주의의 양대 기둥인 자유와 평등 중에 어느 것도 다른 하나를 위해 유보되어서는 안 된다는 상식(셰이빈, 2001)을 무샤와라 사례가 다시 확인시켜 준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자는 무샤와라 사례에서 “말 놀이”라 이름붙인 유희적 요소의 중요성도 발견한다. 인내심을 요하는 무샤와라 과정에서 언어의 유희가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속적인 토론을 추동하는 윤활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저자가 열거한 다양한 언어 구사 전략(322-332)에 관해 읽으면서 우리와 달리 대화에 능한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무샤와라는 고충이 아니라 즐거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IV. 행복한 인도네시아 연구자

1990년대 초반에 인도네시아 현지조사를 시작했으니 김형준 교수가 인도네시아를 연구한 지 사반세기를 넘어섰고, 그런 만큼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많이 산출하였다. 이번 책의 발간도 그의 연구 역정에 한 획을 긋는 기념비적 성과로 축하할 만한데, 여기서 축하의 이유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그것은 저자가

‘행복한’ 인도네시아 연구자가 된 것 같다는 것이다.

세계의 인도네시아 연구자들 가운데 현지의 제도나 문화 혹은 국가기관이나 엘리트의 행태, 심지어 보통사람들의 반응에서 짜증이나 좌절을 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도처에 만연된 부패, 방치되는 쓰레기와 공해, 공직자들의 무책임과 나태, 테러리즘과 종교적 극단주의, 부실하고 방만한 교육, 그리고 풍요로운 자원과 몽타주를 이루는 빈곤실태 등을 접하며 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더 각성해야 한다고 걱정하는 이들을 종종 접한다. 김형준 교수가 10년 전에 “어느 문화인류학자의 인도네시아 깊이 읽기”라는 부제를 달아 『적도를 달리는 남자』를 출간했을 때 거기 담긴 내용의 일부도 인도네시아 사회와 문화가 담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독자가 읽기에 충분히 흥미로운 개인적 경험 분석과 비판적 문화 해석을 담고 있었지만, 책을 쓴 필자가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책은 달랐다. 이 책을 왜 무함마디아에서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고 싶어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저자는 인도네시아 무함마디아에서 희망을 발견한다. 무함마디아 조직과 활동에 대한 깊은 묘사 속에서 저자의 진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무함마디아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출마한 2004년 대통령선거 때 집계 부정에 관한 소문을 들은 활동가 하르디가 밤을 새워 지부를 돌며 진상을 추적하다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책 초반에 나온다(30-34). 이런 경우는 명칭하거나 쓸데없는 짓이었다고 여기는 연구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저자는 그 활동가와 밤새 동행하며 그 활동가의 헌신과 진정성에 주목하면서 그의 ‘순수한 열정’을 이해하고 싶어진다. 공교롭게도 순수한 열정은 인도네시아 국기를 구성하는 백색과 적색의 의미다.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을 것 같은 현지의 조직과 사람에게서 희망을 발견하는 이는 행복한 지역연구자다. 그는 인도네시아 보건의복지 개혁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도 지방정부의 도전과 실험의 긍정적 귀결을 강조한 바 있다(전체성·김형준, 2022). 행복한 인도네시아 연구자로서 김형준 교수가 다음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또 들려줄지 벌써 기대가 된다.

## 참고문헌

- 김형준. 2012. 「적도를 달리는 남자: 어느 문화인류학자의 인도네시아 깊이 읽기」. 이매진.
- \_\_\_\_\_. 2021. 「이슬람과 민주주의: 인도네시아 이슬람단체 무함마디아의 민주적 전통」. 놀민.
- 레이파트, 아렌드. 1987. 『민주국가론』. 법문사.
- 레이프하트, 아렌드. 2016. 『민주주의의 유형: 다수결 민주주의와 합의 민주주의 간의 정부 형태와 성과 비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세바인, 조지. 1994. “민주주의의 두 전통.” 강정인 외 편역. 『현대민주주의론의 경향과 쟁점』. 문학과 지성사.
- 센, 아마티야. 2001. 『자유로서의 발전』. 세종연구원.
- 에드워즈, 마이클. 2018. 『시민사회』. 명인문화사.
- 전제성. 2003. “민주화 이행기 인도네시아 노동운동단체의 조직노선.” 『국제·지역연구』 12(3), 91-111.
- \_\_\_\_\_. 2007. “무니르의 생애로 본 인도네시아의 사회운동과 민주화.” 『지역과 세계』 37(1), 1-35.
- 전제성·김형준. 2022. “인도네시아의 보편적 건강보장 체계의 형성.” 서보경 편. 『동남아시아의 건강보장』. 전북대출판문화원. 제2장.
- 하버마스, 위르겐. 1987. 『이성적인 사회를 향하여』. 종로서적. 제1장.
- 헬드, 데이비드. 2013. “숙의 민주주의와 공공 영역의 옹호.” 『민주주의의 모델들』. 후마니타스. 제9장.
- Lijphart, Arend. 2007. “The Consensus Model of Democracy.” Michael Saward, ed. *Democracy: Critical Concepts in Political Science*. Vol. II. New York: Routledge.
- Przeworski, Adam. 1986. *Capitalism and Social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